

프랑스국립도서관(BnF) 소장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大佛頂如來密因脩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권1, 2에 기입된 구결(口訣) 및 한글 연구*

하정수(한국기술교육대 교양학부 강사)

〈 목 차 〉

1. 서론	4. 기입 한글과 주석
2. 서지사항과 문헌 성격	4.1. 기입 한글
2.1. 서지사항	4.1.1. 한글 자음
2.2. 문헌의 성격	4.1.2. 한글 모음
3. 기입 구결	4.1.3. 부정문
3.1. 구결의 형태	4.2. 주석
3.1.1. 약체 구결	4.2.1. 음주(音注)
3.1.2. 정자 구결	4.2.2. 내용주
3.1.3. 한글 혼용	4.2.3. 특이 주석
3.2. 『능엄경언해』 한글 구결과 비교	5.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프랑스국립도서관(BnF) 소장 『능엄경』에 목서로 본문 좌우에 기입된 구결과 한글 등을 관독하고 그 성격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능엄경』의 우리말 번역인 『능엄경언해』는 1461년에 활자본으로 인출된 뒤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B5A07064078).

바로 다음해인 1462년에 목판본으로 인출된다. 세조는 『능엄경』 한글 번역 등 불경 언해 사업에 많은 흥미와 관심을 기울였다. 따라서 당시 유명한 학자와 승려들은 이 사업에 참여하였다. 세조 이후에도 이 사업에 참여하였던 왕실 인물과 승려들은 유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번역과 역경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프랑스국립도서관(BnF) 소장 『능엄경』은 고려 시대 차자표기법인 음독구결과 석독구결의 흔적이 있다. 이 문헌은 『능엄경언해』 이전의 관각된 한문 판본으로 언해와 관련된 내용이 목서로 기입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 문헌에 기입된 구결과 한글이 조선 초기 『능엄경』의 언해 시기 당시 언어 사실을 반영한 차자표기 즉 고려 말의 차자표기 전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중성 표기 등 능엄경 언해의 구결과 차이점을 보이는 한글 표기를 음독구결과 석독구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그 외의 주석과 후독자(後讀字) 등을 논의하여 그것이 나타내는 언어 사실을 판독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언어 연구를 위한 음독구결 자료를 추가하고 석독을 위한 한글과 구결자 표기 연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제어: 프랑스국립도서관(BnF), 능엄경(楞嚴經), 구결(口訣), 언해(諺解), 한글, 주석, 기입 목서, 후독자(後讀字)

1. 서론

이 연구는 프랑스국립도서관(BnF, Bibliotheque Nationale de France)의 필사본장서부에 소장된 한문본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이하 BnF 『능엄경』)을 소개하고, 이 책 전질 10권 5책 중 제1책(권제1, 권제2)에 기입된 구결과 한글을 판독하여 그 양상을 구명(究明)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문헌은 전질 10권으

로 면수만 총 1042면으로 연구 대상으로서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각 행의 좌우에 구결과 한글 등이 기입되어 있고, 글자 중간에도 특별한 부호와 글자가 묵서로 쓰여 있다. 또한 난외에 다양한 주석이 기입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지사항은 문헌 전체에 대한 것을 다루지만 그 외의 기입 묵서에 관한 내용은 그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첫 번째 1책인 권제1과 권제2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이 문헌은 프랑스국립도서관(BnF) 홈페이지에서 2015년부터 공개되었고 국내에는 한지희·김효경·이혜은(2017)에 의해 기초적인 내용이 간략하게 소개된 바 있다.¹⁾

이 문헌에 기입된 묵서(墨書)는 구결, 한글, 주석의 3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묵서 기입 구결은 두 층위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각 행의 오른쪽에 기입된 음독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전의 내용을 우리말로 해석하여 읽는 석독(釋讀)을 위한 것으로 세필(細筆)로 주로 글자의 원편에 적혔지만 간혹 글자 중간에도 기입된 문자들이다. 둘째 묵서 기입 한글은 두 종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석독을 위하여 구결과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된 한글이고, 다른 하나는 그 외의 목적으로 기입된 한글이다. 셋째 주석은 변란의 밖이나 행간에 묵서로 기입되어 있다. 이 주석들은 음주와 내용주의 성격을 띠며 경전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간혹 경문의 중간에 주석을 위한 표시 또는 직접 주석을 기입한 경우도 있다.

본 연구는 BnF 『능엄경』의 서지사항과 문헌의 성격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이후 이 문헌의 제1권과 제2권에 한정하여 여기에 기입된 묵서를 구결, 한글, 주석으로 나누어 그 전반적인 양상과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한지희·김효경·이혜은(2017: 307-325)에서 이 책은 프랑스국립도서관 필사본장서부에 소장된 한국 고문헌 중의 하나로 다루어졌다.

2. 서지사항과 문헌 성격

2.1. 서지사항

BnF 『능엄경』은 크기가 38 × 22cm이고 사주쌍변(四周雙邊)에 반곽은 26.9 × 17.9cm이며 8행 20자의 대자본 목판본이다.²⁾ 이 책은 신증판하본이라고 불리는 태종 1년(1401) 당시 태상왕이었던 태조의 명으로 판각하여 간행한 『능엄경』 10권 5책을 세조 2년(1456)에 인출한 것이다.³⁾ 동일한 판본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보물 제759호)은 완전본이나 권1 서문과 권수 부분이 떨어져 나갔다. BnF 『능엄경』은 서문과 권수까지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다.⁴⁾ 일산 원각사 소장본도 서문과 권수가 완전히 보존되어 있으며 1권의 첫 면에 인면과 수결이 있다.

(1) 1456년 학조(學祖) 발문(跋文)

首楞嚴王諸經之骨髓修證之正路所以開

發眼目饒益人天者也我

-
- 2) 하정수(2017)은 문헌 간행에 간여한 인물들 중심으로 한 서지사항과 기입된 목서의 성격에 대해 간략히 논의한 바 있다.
- 3) 1401년에 간행한 신증 판하 목판본을 다시 인출한 것인지 1401년판 문헌을 1456년에 번각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동일한 판본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일산 원각사 소장본(권1, 2), 통도사 소장본(권 9,10), 기림사 소장본(권2, 3, 4) 등의 형태 서지를 상호 비교하면 이들의 정확한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후고로 미룬다.
- 4) 프랑스국립도서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상세 정보는 ‘10卷5冊. 四周雙邊, 半郭 26.9×17.9cm, 無界, 8行20字, 無魚尾 ; 38.0×22.0cm 序 : 像季已還道術…建炎改元(1127) 中秋吉日善集堂序. 跋 : 首楞嚴經者…己酉(1129) 中秋後五日住湖山/萬安比丘行儀 謹跋 右善本大字楞嚴板本…建文三年辛巳(1401) 五月 日 (權近, 1352-1409), 首楞嚴王諸經之骨·景泰七年(1456) 丙子十月日 山人學祖 謹跋 自題記 : [RF/BIBLIOTHEQUE NATIONALE/MSS(圓形朱印)]로 현 소장처 장서인까지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다. (<https://gallica.bnf.fr/ark:/12148/btv1b105093974/f1.image.r=%E6%A5%9E%E5%9A%B4%E7%B6%93>)

東宮嬪韓氏爲先考妣印出是經二十五部裝
潢備飾流布無窮以成經之勝緣因法施之
大願蒙益先靈超生淨域四生三有同霑利
樂良可期矣

景泰七年丙子十月 日山人學祖 謹跋

(1)은 1401년 판본에 있는 발문 뒤에 추가되어 있는 학조의 발문을 옮긴 것이다. 위 내용을 살펴보면 동궁빈 한씨가 선고비 즉 돌아가신 부모님을⁵⁾ 위해 1456년에 『능엄경』 25부 인출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⁶⁾ 당시 언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고승 학조 스님이 이 일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다.

-
- 5) 조선 제9대 임금인 성종의 어머니인 소혜왕후 한씨(昭惠王后韓氏)의 아버지는 한확(韓確, 1400-1456)이고 어머니는 남양부부인(南陽府夫人) 홍씨(洪氏, 1410~1456)이다. 어머니는 본관이 남양(南陽)이고, 이조판서 홍여방(洪汝方)의 딸이다. 3남 6녀를 두었고 그중 6녀가 덕종의 비이자 성종의 어머니인 소혜왕후(昭惠王后), 즉 인수대비(仁粹大妃)이다. 2녀는 능엄경언해 목판본의 전(箋)을 쓴 왕자 계양군(桂陽君) 이증(李贈)에게 시집간 군부인(郡夫人) 한씨(韓氏)이다. 이 문헌은 동궁빈 한씨(이후 인수대비)의 어머니 홍씨가 사망한 9월과 장지에 안장한 11월 사이인 10월에 인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임사홍(任士洪)이 글을 짓고 전액(篆額)을 하여 홍치(弘治) 10년(1497, 연산군 3) 6월에 세운 신도비명에 따르면 남양부부인(南陽府夫人) 홍씨(洪氏)는 경태(景泰) 병자년(1456, 세조 2년) 9월 16일 정사일에 향년 47세로 사망하여 이해 11월에 양주(楊州) 치소(治所)의 북쪽 소라산(所羅山)에 안장되었다.
- 6) 프랑스국립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이 문헌의 상세 정보(Informations détaillées)에는 “조선 초기 태상왕(太上王) 태조(太祖, 朝鮮)의 명으로 1401년(태종 1)에 판각된 것을 1456년(세조 2)에 의경세자(懿敬世子, 朝鮮)의 배우자[嬪]인 소혜왕후(昭惠王后, 1437-1504) 한씨(韓氏)가 돌아가신 아버지 한확(韓確, 1403~1456)과 어머니를 위해 나무판에 글자를 새겨 10권 5책으로 인쇄한 책이다.”라고 한국어로 설명하고 있다. 이 문헌이 새로운 판각에 의한 것인지 이전 목판을 재인출하고 마지막 발문이 있는 판만을 새로 새겼는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광동화·강순애(2018: 226-227)에서는 세조대의 왕실발원 문헌에서 이 문헌은 다루지 않았고, 동일한 목적으로 묘법연화경 10부를 인출한 사실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목인(墨印)



주색방인(朱色方印) 권제8



인장을 살펴보면 5책 각 권의 앞쪽 내지에 ‘豊西’라는 장방형 목인이 있다.⁷⁾ 또한 붉은색 방인 총 10과가 다섯 책의 첫 부분과 끝 부분에 1과씩 있다. 권수에 있는 붉은색 방인의 인면은 먹으로 칠한 흔적이 있고, 마지막 5책의 인장은 거꾸로 찍혀 있다.

처음과 끝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붉은색 방인 인면 글자는 잠정적으로 ‘龍暉寺佛法藏寶印’으로 판독하였다.⁸⁾ 인장의 날인 위치와 인주의 색 등을 살펴보면 책 전체를 귀중하고 정성스럽게 보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경문이 시작되는 扱南 要解序의 앞부분에 묵서로 기입된 과문(科文)은 『능엄경언해』와 서로 다르다. 이는 이 문헌에 과문을 주석한 사람은 『능엄경언해』의 과문 체계와 다르게 주석을 한 것을 보여 준다. 제2권의 끝 겹표지 내지에 묵서로 작자 ‘靈一’의 ‘題僧院’이⁹⁾ 초서체로 쓰여 있는 점도 이 책이 갖는 특이한 점이다.

제5책 권9의 권수에 있는 장서인은 본문의 왼쪽 아래에 묵서로 기입된 구결을 백묵(白墨)으로 수정한 뒤에 날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서인은 구결 기입 이후에 날인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장서인을 통해 장서 시기와 장서가에 대한 정보가 밝혀지면 구결과 묵서 기입

권제9 1ㄱ



- 7) 이 목인에 관련한 정보는 찾지 못하였으나 중간 소유자의 소장인으로 생각된다.
 8) 실록이나 사지(寺誌) 등에서 ‘龍暉寺’를 찾지 못하였다.
 9) “虎溪開月引相過帶 / 雪松枝掛碧蘿無限青山 / 看欲盡白雲深處老僧多 / 右僧靈一詩爲無悶先/生題”(은 행 바깥 표시)의 묵서이다. 제2연의 ‘薛’이 ‘碧’으로 3연의 ‘行’이 ‘看’으로 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저자는 중당(中唐) 석영일(釋靈一, 728?~762?)이고 제목은 승원(僧院)이다. 전당시(全唐詩) 권850_4에 실려 있다. 묵서 뒤에 적힌 무민(無悶)은 오대십국(五代十國) 시기에 남방의 승려로 서기 930년경의 인물로만 알려졌고, 당시에 능했다고 하며 전당시에 두 수 ‘한림석병(寒林石屏)’, ‘모춘송인(暮春送人)’이 전한다. 『唐詩紀事』 권76. 전당시 데이터베이스 <<http://cls.hs.yzu.edu.tw/tang/Database/index.html>>.]

시기의 하한선을 정하는 데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2.2. 문헌의 성격

BnF 『능엄경』은 고려 말 조선 초의 능엄경에 기입된 구결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이 문헌에 기입된 음독구결을 판독하면 능엄경 음독 구결 텍스트 자료에 추가할 수 있는 대상 자료가 된다. 이 작업을 통해 고려 말 조선 초 『능엄경』 음독구결에 대한 기초 연구 자료를 보충할 수 있다. BnF 『능엄경』에 기입된 구결은 그 기입 시기가 조선 초기로 추정되는 능엄경 음독구결 자료와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 비교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BnF 『능엄경』에 기입된 한글 자료는 그 성격이 여타의 『능엄경』 문헌에 기입된 한글과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 이 문헌의 구결과 한글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면 이 문헌에 기입된 문자 즉 구결과 한글에 의한 언어 표현이 나타내는 언어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문헌의 각 행 오른쪽에 기입된 음독을 위한 구결은 독송을 위한 것이고, 석독을 위한 구결은 경전의 내용을 우리말로 읽을 수 있도록 한글과 구결자로 기입한 세필의 묵서로 이는 번역 또는 해석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종류의 문자 체계는 당시 경전의 유행 상황과 능엄경 내용 이해에 대한 측면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고려 말 조선 초의 『능엄경』과 관련한 학문적 경향은 조선 초기 세조 조와 동궁빈 한씨 즉 인수대비 생존 시기에 집중되었던 간경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시대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특히 학조(學祖)의 발문에 나타난 인출 연도인 1456년은 한글 창제 후 10여 년이 지난 시기이다. 따라서 이 문헌에 나타난 한글과 구결은 기입 시기의 상한선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음독구결의 경우 이 문헌에 나타나는 형태의 상한선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어, 조선 초기의 음독 구결의 형태를 통한 시기 비정 연구에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이 문헌에 나타나는 한글의 자형 및 표기법 등은 다른 문헌 및 언해 자료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점에서 BnF 『능엄경』에

대한 연구는 서로 다른 학문 분야에 보완적인 연구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

BnF 『능엄경』에 기입된 구결과 한글 텍스트를 면밀하게 교감하면 이 문헌에 기입된 문자 체계의 계통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교감의 대상은 『능엄경 언해』의 한글구결 텍스트와 언해 텍스트이다. 이를 통해 기존 『능엄경』 음독 구결 텍스트를 보완할 수 있다. 기존 여말 선초의 능엄경은 경문뿐이거나 영본으로 빠진 부분이 여러 곳 있다. 그러나 BnF 『능엄경』은 완전한 형태의 손상이 거의 없는 계환해 능엄경 완질이다. 이 점은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능엄경(보물 제1603호)과 국립도서관 소장 능엄경(보물 759호)이 공유하는 특성이다. 그러나 이 세 판본 중에서 BnF 『능엄경』 구결과 주석이 가장 정제되고 자세하다. 이 점은 구결과 언해문의 번역 양상의 비교 연구를 용이하게 한다. 또한 BnF 『능엄경』에 구결과 한글을 기입한 사람이 동일인이 아니고 여러 명의 작업자가 그 시기와 목적을 달리하여 기입했을 것으로 파악된다.¹⁰⁾ 음독 구결은 2번 이상의 중층적 기입 층위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경문 왼쪽에 기입되는 한글은 방언형과 특이 표기법 등 다양한 언어 사실이 내재된 자료로 판단할 수 있다.

BnF 『능엄경』은 1465년 학조의 간기가 남아 있어 언제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몇 부를 간행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이 점은 문헌학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구결이 기입되고 글자에 대한 해석 등 한글이 기입되어 있어 조선 시대의 언어 자료를 보충하여 국어사 연구의 정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글 창제 이전의 문자 자료와 한글 창제 이후의 문자 자료를 통한 국어학 연구에 가고 역할을 하는 것은 여말 선초의 구결 기입 문헌들이다. 이러

10) 심사 위원 한 분은 ‘여러 명의 작업자’, ‘방언형’ 등의 특징이 문헌의 언어적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오히려 구결과 언해문의 번역 양상 비교 연구에서 난점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동의한다. 다만 음독구결의 층위별 기입자, 석독구결과 한글 주석의 기입자가 서로 다르다는 점과 일관된 한 영역에 대한 기입자를 파악할 수 있다면 그 기입 내용에 대한 정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한 문헌은 주로 『금강경』, 『능엄경』, 『법화경』, 『증도가』와 같은 불교 문헌이다. 그중 『능엄경』은 그 자료의 양과 질적인 면에서 다른 경전에 비해 그 비중이 크다. 따라서 이 시기 『능엄경』 완질은 문헌학, 국어학, 불교학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특히 국어사 분야에서 『능엄경언해』의 활자본과 목판본에 대한 연구는 국어학 특히 국어사의 중세국어와 관련하여 양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¹¹⁾ 이러한 측면에서 BnF 『능엄경』에 기입된 구결은 그 기입 양상이 독특하고, 또한 특이한 형태의 한글이 함께 기입되어 있는 자료라는 데 이 문헌의 독창성과 중요성이 있다.

3. 기입 구결

3.1. 구결의 형태

고려 시대의 석독구결은 한문 원문을 우리말로 풀어 읽는 방식이다. 조선 시대에는 이와 다른 방식이 사용되었다. 즉 음독구결을 사용하여 한문 원문을 우리말로 풀어서 읽지 않고 한자음으로 읽는 방식을 사용하였다.¹²⁾ 이 방식은 15세기경에 일반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한글이 창제된 이후 한자의 훈을 한글로 기입하는 석독의 새로운 양식이 나타난다.¹³⁾

11) 남경란(1997, 1999, 2000), 南京蘭(2005)는 『능엄경』에 기입된 구결을 고려 말과 조선 초에 간행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남풍현(1990, 1995)는 고려 말과 조선 초 능엄경에 대한 구결과 그 표기법에 논의하였다.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능엄경』에 대해서는 千惠鳳(2006)의 서지적 논의와 하정수(2019)의 기입 목서 구결에 관한 논의가 있다.

12) 구결 자료의 해독과 음독구결과 석독구결의 기입 방식 및 구결의 발전 과정에 관해 안병희(1977), 남풍현(1999), 박진호(2008), 정계영(2014)를 참조할 수 있다.

13) 안병희(1976)에서는 『능엄경』, 『법화경』 등의 한자의 훈을 차차나 한글로 기입하고, 우리말 어순으로 한숫자[漢數字] ‘一, 二, 三’ 등을 기입한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BnF 『능엄경』은 한숫자가 아닌 작은 목점 ‘·, ∙, ∙∙, ∙∙∙’ 등이 세로 형태로 길게 글자의 오른쪽에 붙어서 기입되었다.

BnF 『능엄경』에 기입된 음독구결과 석독구결 두 층위의 구결은 당시의 이러한 언어생활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석독 방식은 우리말로 직접 풀어 읽는 번역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 BnF 『능엄경』에서 경전의 오른쪽에 기입된 석독을 위한 구결은 한글이 주이고 약체 구결자가 보조적인 표기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음독구결은 음독과 석독 두 독법에 모두 사용되었고, 석독구결은 석독에 한정하여 쓰인다. 그러므로 먼저 이 문헌에 나타난 구결의 형태를 경문의 오른쪽에 기입된 음독구결을 그 형태에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BnF 『능엄경』의 음독구결은 최소한 2번 이상의 수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여기에 기입된 음독구결자는 약체 구결자를 기본으로 동일한 음가에 다른 구결자를 쓰거나 약체 구결자의 원 글자에 해당하는 한자를 기입한 경우 등 구결 표기에 다양한 모습이 나타난다. 제2권 초반에 음독구결 수정이 많이 이루어졌다. 이 수정은 능엄경언해의 한글 구결에 맞추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헌의 전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없다.¹⁴⁾

그림 1은 어순 표시, 음독구결, 석독을 위한 한글, 석독을 위한 구결자, 음독구결 수정 등이 나타난 예이다. 이 구결에 대한 『능엄경언해』의 한글 구결과 언해를 살펴보자.



- (2) 가. 不應說言호더 見이 有舒縮이니라<언해구결楞嚴2:41a>
- 나. 날오더 보미 퍼며 읊추미 잇다호미 올티 아니호니라<언해楞嚴2:41a>
- 다. 不應說言ノム 見、有舒縮ヒ、(BnF楞嚴2:17L 4행)
- 다' 不(4점)應(3점)[올티]說(합부)(1점)言ノム 見(1점)[↘]、有(2점)[다
↘]舒(1점)[↘]縮(1점)[↘]ヒ、(BnF楞嚴2:17L 4행)

14) 3권부터 10권까지의 전체 수정 경향을 보았을 때 한자의 뜻을 나타낸 표기가 다른 곳과 음독구결이 한글 구결과 다르게 표기된 곳이 많아서 『능엄경언해』의 언해와 한글 구결을 베껴 쓴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가)의 한글 음독구결과 이 문헌에 기입된 구결 (2다)를 비교하면 계사를 나타내는 ‘이니라’의 ‘\’에 해당되는 글자가 생략된 것 외에는 구결이 동일하게 기입되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1다)의 ‘ㄷ, ’는 흰색 먹으로 지운 뒤에 수정하여 기입한 흔적이 뚜렷이 보인다. 이전에 기입된 구결은 수정 후에 기입한 것보다 구문이 길었을 가능성이 있다. (2다)는 경문의 원편에 기입된 석독과 오른편의 석독 순서를 표기한 점을 같이 표기하여 나타낸 것이다. (2다)에 따라 석독을 하면 ‘說(합부)言ノム 見[ㄷ] \ 舒[ㄷ] 縮[ㄷ] 有[다]ノ\] 應(3점)[올티] 不(4점)ㄷ, ’로 언해문의 ‘닐오디 보미 퍼며 움추미 잇다호미 올티 아니흐니라’와 우리말 어순과 뜻풀이가 일치한다. 왼쪽에 기입된 석독을 위한 구결자 중에는 ‘다ノ\’와 같이 한글 ‘다’와 구결자 ‘ノ\’(호미)가 함께 사용되는 등 그 기입 양상이 다양한 것이 이 문헌의 특성이다. 이 문헌에 기입된 음독구결의 양상을 고려 말 조선 초의 다른 능엄경 문헌과 비교하여 살펴보자.

- (3) 가. 不應說言見有舒縮ノヲオヒハニ <가람楞嚴2:34b_23-35a_1>
 나. 不應說言見有舒縮ㄷ, <일사楞嚴2:34b_23-35a_1>
 다. 不應說言ノム 見\ 有舒縮ㄷ, (BnF楞嚴2:17L 4행)

(3가나)는 (2)와 동일한 구결에 구결이 기입된 일사본 『능엄경』과 가람본 『능엄경』의 해당 구결이다. 이 부분만 살펴보면 BnF 『능엄경』 구결은 (3나)의 일사본 『능엄경』에 기입된 구결과 기입 양상이 유사하다. 이 구문의 수정 전 구결은 가람본 또는 일사본에 기입된 구결과 같이 고려 말 조선초 구결의 전통을 간직하였음을 시사한다.

3.1.1. 약체 구결

이 문헌에 기입된 음독구결은 대부분의 약체 구결자가 사용되었다. 기입된 약체 구결자는 정리하면 (4)와 같다. 이들 구결자의 분포를 볼 때 고려

去ソヒヒ, 又, ソ乙ニ, \・ソニ大, ソ士ト, 七, 五, \・リ午, ソ又・, 去ニヒ, 印,
 \・テ7, ソ牙分, ソリ士\, 去\ソニ分, \申月乙去\ソニ分, \ニ月乙去\ソ
 ニ分, 去乙, 又, 午, ・, \・七, 乙又, 리・, ソハ未, \・, \・五, 刀, ノ勿乙, \・
 ソ}, ソ乙士\, \オヒ入+, ソ分7, ソ}・, \オ乙}, 入+, \可ソ又・, ソリ
 ヒ, \・(刹), 去7大, \又士ヒ, \ニ口, \ニヒ, ソリ士\, 二ヒ・, \ニヒ・,
 ソ}立, 去7大, \五, \・ソテ7, オ入, ソテ, 又, \ニリ五, ソ士午ム, \・, ソ
 乙士\, ソ全 ソハ, ソニ7, \・, ノテ7, \・, ソニ士\, \・, \・ソヒ・(\・ソ
 리・), ソ乙可ソニ士\, ソテヒト, ト又, ソ}叱加ソヒ, \・ヒ, ソヒヒテヒ, ノ
 勿乙, ソ}, \入乙ソヒ・, オ乙, 大7, ソ士入ヒ, オ入, ソ乙士乙, \・, ソ士午勿
 乙, ソニ大7, ソ入ヒ, ソ入ニ1, \・ニ1, ソ士口, ソ士入・, ノリ・ソ分, \・
 (刹), ソ入ヒ, ソ乙ニ, 口, \, 去7大7, 乙士\, ソ兎ト, ソ兎入ヒ, ソニ入ヒ,
 オニ乙, ソ}ニ乙, 去乙, \全七1, ソ乙ニヒ, ソ兎ト, ソ兎入ヒ, ソP1, ソ全
 未, ノ\1, \大7, ソ乙士\ヒ, P, \入乙ソニヒ, \ソヒ, ソハ1可, ソハ7,
 ソ}立, ソ兎入・, \全, 全未, 士七ソヒ, \・ソ要勿又, ソ汝ヒ七入+, ソ果
 \1, ソ刀士\1, 士七ソ}, 七\1, \・ソ}7テ7, \・(刹), ソ41, ノ每, \
 乙士\, \・, P乙, \又士\1, ソ1, ソ牙分, \オヒ入+, ソ乙ニ, ソニ口, ソ
 オヒ入+, \・ソ入ヒ・, \・ソニホヒ, 大7, \・ソ}刀, 乙士\, 果・, ソ7, 去
 ソ小立, ソ士邑ガヒ, ソテ, ソニ入ヒ, ソ要7, ソ去入7, \・(之)(刹), ソニ口
 (ヒ), ソ士又\1, ソ全ム, ソヒ1, ソニ又7入乙ソ又\1, ソヒ1, ソ士又\1,
 ソヒ1, \・ソニヒヒ七口, \, ソ去ヒオヒ入, ソ要刀, 士七ソ1士\1, 士七ソ
 7月果\1, 士七ノ月夫\1, ノ}, ソ士午ム, 去ソニヒ, ソ}, ソニ入\1, 巨
 大7, \大7, 士士\1, \大7, \オ丁, \・, \・, ノ音果又, ソヒ1, 士士\1,
 \・(矣), ソ午勿7, ハ, ソ士巴(1)可, 士七ソ\1, 乎未, ソニヒ\1, \オニ
 丁, 乙, ソニ大, 乙・7, ソヒ1, \又士, ソ}, \オ了

(6) 제2권 구결 구조체

ソ兎巴口, ソ1ヒ, 月七ソ41ソ口, オ\, ソ士トニ乙只\, ノ勿乙, ノ7テ7,
 ソ入了, ソ乙其\, ノ音勿7, ソ}, \, ソヒ1(7)1, ソヒ71, \又士, ソ全,
 ソ}7, ソヒ7, 리午, 士位, ソ}入7, ソ乎勿又, ソ}・ソリオ牙入, ソ}七1
 可, ソ要音刀, ソ}, \, ソ}7, ソ\七口, ソ士位, 阿(?), ソヒ1, ソテヒ入7,

『능엄경언해』의 한글 구결과 차이를 보이는 예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¹⁵⁾ 언해 구결이 ‘호도다’로 된 것은 구결자 ‘호斗다’와 ‘호斗다’의 두 형태가 모두 나타난다. 언해 구결이 ‘홀저기’로 된 곳은 ‘호乙其’로 나타나며, 계사가 포함된 구문의 ‘호’는 수의적으로 생략된다. 구결자 ‘斗’는 계사나 주격 조사를 표상하는 경우에 사용된 예가 없고, 독음이 ‘리’에 해당하는 곳에만 쓰였다. ‘건대’와 ‘건덴’을 표상하는 구결은 ‘호斗大’, ‘호斗大’, ‘호大’ 등 구결자 ‘斗’가 수의적으로 생략된 형태로 쓰였다. 구결 구조체에서도 복원이 가능한 부분은 생략이 빈번하였다. 이 음독구결 체계는 정밀한 표기보다는 표기의 효율성을 지향한 것으로 보인다.

3.1.2. 정자 구결

조선 초기 문헌 중 판각 구결이 있는 『지장경구결』처럼 구결자가 그 원자가 되는 한자의 정자로 기입되는 경우가 있다. 이 문헌의 구결자 중에서도 약체 구결자가 아닌 한자가 그대로 쓰인 예가 있다. 이는 약체 구결자의 원자를 추정하는 근거가 되며 당시 한자음을 추측해 보는 데 도움이 된다.

(7) 가. 七皆(1:1L 1행)

15) (4)의 구결자와 (5), (6)의 구결 구조체에 대하여 첫째 세부적 시대 구분, 둘째 그 문법적 기능에 따른 분류, 셋째 한글 구결과의 차이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의 균형과 지면의 제약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남풍현(1999: 399-429)에서 고려 말 조선 초 능엄경[박동섭본(안동본, 현 소곡본), 대구본(남권회본)]에 기입된 음독 구결을 문자체계와 차자의 운영으로 나누어 논의한 바 있다. BnF 『능엄경』에 기입된 음독구결에서도 문자체계에서 정자체와 약체가 함께 쓰이는 것, 같은 차자의 자형이 다른 것, 같은 차자의 약체가 여러 이형으로 바뀌는 것 등의 유사한 현상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차자의 운영 면에서는 생략표기, 음의 첨기, 대표음의 전용 등에서 유사한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 신형과 고행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예문 (4)는 문자 체계에 해당하고 예문 (5)와 (6)은 차자의 운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문헌에 기입된 음독구결자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이 문헌 전체의 음독구결을 정리한 뒤의 후고로 미루고자 한다.

- (12) 가. ㄴ每(1:24ㄱ:6)
 나. 호매(1:60ㄴ:4)
 나. 每 니으 밋 <光千40b>
- (13) 가. 阿(?阿)(2:12ㄱ:3)
 나. 아(2:28ㄱ:2)
- (14) 가. ㄴ; 段(2:18ㄱ:2)
 나. 햏야둔(42ㄱ:2)

(10)은 한글 ‘괘’ 또는 ‘쾌’에 해당하는 구결자로 한자 원자 ‘夫’가 기입된 예이다.¹⁶⁾ (11)은 한글 구결 ‘미’에 해당하는 구결자 위치에 한자 원자 ‘眉’가 기입된 예이다. BnF 『능엄경』에서 독음 ‘미’에 해당하는 구결자는 일반적으로 ‘未, ㄴ, ㅁ’이다. (12)는 한글 구결 ‘매’에 해당하는 구결자 위치에 한자 ‘每’가 기입된 예이다. ‘每’의 한글 독음은 ‘미’로 이중모음의 첫 번째 모음의 ‘ㄴ’와 ‘ㅁ’가 혼용되었음을 보여 준다. 방언적 요소일 가능성이 있다. (13)은 구결자 ‘阿’로 파악할 수 있으나 그 글자의 크기와 주변의 다른 구결자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한자로 판단할 수 있는 예이다. 한글 독음 ‘아’를 나타내기 위해 한자 ‘阿’를 쓴 것이다. 이 글자가 생략되어 구결자 ‘阿, ㅍ, ㅑ’로 발달하였다. (14)는 한글 구결 ‘든’을 표기하기 위해 쓰인 한자 ‘段’이다. 이 형태의 구결에서는 구결자 ‘ㄴㄱ’, ‘ㅁㄱ’, ‘ㅆㄱ’이 기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한자 원자를 사용하여 음독구결을 기입한 예는 이 문헌에 음독구결을 기입한 현토자가 한자와 구결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창의적으로 활용하였음을 보여 준다.

3.1.3. 한글 혼용

조선 초 불교 문헌 등에서 경문의 왼쪽에 세필의 묵서로 기입되는 석독구결에는 한글과 구결자가 혼용되는 예가 일반적이다. 반면 약체 구결자가 주

16) 동일 판본인 일산 원각사본 『능엄경』에는 ‘快’자가 정자 구결로 쓰여 있다.

로 사용되는 음독구결에 한글이 기입되는 경우는 드물다. BnF 『능엄경』에는 음독구결을 기입한 구결 구조체에 한글이 함께 쓰인 예가 여럿 있다. 구결 구조체 전체가 한글인 경우부터 글자 사이에 마치 구결자처럼 한글이 쓰인 경우가 있다. 한글은 글자의 처음, 중간, 마지막, 받침 등 위치에 제한이 없다. 그러나 음독구결 구조체에서 두 글자 이상의 한글이 쓰인 예는 나타나지 않았다.

- (15) 가. ㄴ옴刀(1:24ㄴ 5행), ㅎ옴도(1:61ㄴ 2행)
 나. 쨌(2:2ㄴ 6행), 쨌(2:5ㄴ 3행)
 다. ㄴ ㄱ(2:8ㄴ 5행, 2:11ㄴ 7행), ㅎ약(2:18ㄴ 7행, 2:26ㄴ 3행)
 라. ㅌㄴ(2:26ㄴ 1행), ㅌㅎ야(2:61ㄴ 1행)

(15가)는 음독구결이 기입되는 구결자 사이에 한글이 혼용된 예이다. 이 음독구결 구조체는 주로 ‘ㄴ옴刀’, ‘ㄴ옴刀’, ‘ㄴ옴刀’의 형태로 나타난다. 모양 면에서 구결자보다 간단한 한글이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15나)는 『능엄경언해』 한글 구결에서 각자병서에 해당하는 ‘쨌’의 자리에 ‘ㅌ’계 합용병서 ‘ㄴ’을 포함한 ‘쨌’ 형태가 쓰인 예이다. 구결자 ‘ㅌ’에 해당하는 것이다.¹⁷⁾ (15다)는 구결자 ‘ㄴ ㄱ’ 뒤에 한글 ‘ㄱ’이 마치 받침처럼 쓰여 언해의 한글 구결 ‘ㅎ약’을 나타냈다.¹⁸⁾ 이 예는 어미 ‘-아/어’의 강세형 ‘-악/역’의 종성 ‘ㄱ’을 구결 뒤에 추가하여 한글로 기입한 것이다. (15라)는 음독구결의 첫 부분이 한글로 기입된 예로 BnF 『능엄경』에서는 일반적으로 ‘ㅌㄴ’의 ‘ㅌ’에 해당하는 곳이다.¹⁹⁾ 『능엄경언해』 한글 구결의 ‘ㅌㅎ야’에 해당한다.

17) ‘쨌’은 한 글자로 된 한글 구결로 볼 수도 있지만 이 문헌의 음독구결 체계상 음독구결 한글 혼용에서 다루고자 한다.

18) ‘ㄱ’과 구결자 ‘ㄱ’의 형태가 비슷하여 ‘ㅎ얀’을 나타낸 ‘ㄴ ㄱ’으로 볼 가능성 있으나 문맥상 ‘ㅎ얀’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19) ‘ㅌㄴ’의 독음과 관련하여 ‘ㅌ’이 ‘디’와 ‘ㅌ’로 읽는 두 가지 독법을 상정할 수 있다. 첫째는 한자 원자 ‘地’를 음으로 읽고 생략한 것으로, 둘째는 ‘地’를 훈 ‘ㅌ’ 또는 ‘ㅌ’로 읽고 생략한 것으로 같은 구결자이고 동시에 사용되었지만 전자는 ‘ㅌ’ 후자는 ‘ㅌㄴ’에서만 고정되어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방언형의 모음과

한글이 혼용된 음독구결 구조체의 존재는 해당 층위의 수정 음독구결이²⁰⁾ 기입될 당시 음독구결 기입자는 한글에 대한 이해가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이 음독구결자의 기입 시기는 이 문헌에 나타나는 한글 표기 특성과 관련지어 볼 때 16세기 이후를 포함하는 15세기 이후라는 점을 보여 준다. BnF 『능엄경』의 음독구결 기입 시기는 한글이 꽤 활발하게 사용되고 확산되던 때로 파악할 수 있다. 구결 기입자는 한글을 충분히 구결자와 같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준다. BnF 『능엄경』에 기입된 음독구결이 보여주는 특이한 양상이다.

3.2. 『능엄경언해』 한글 구결과의 비교

구결은 고형의 언어 형태를 보여 주는 특성이 있어 대상 문헌에 기입된 구결이 비록 조선 초기의 문헌에 기입된 구결이라도 이 구결이 반영하는 언어 사실은 기입된 시대보다 앞선 시기의 것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BnF 『능엄경』에 기입된 음독 구결은 고려 말 조선 초 능엄경의 다른 구결과 비교해 볼 수 있다. BnF 『능엄경』 제1권의 첫 구결과 마지막 구결을 가람본 『능엄경』, 일사본 『능엄경』, 『능엄경언해』 한글 구결, 『능엄경언해』 언해를 대조하여 살펴보자.²¹⁾

관련하여 광주 천자문에서 ‘地’의 독음은 ‘짜 디’로 모음의 ‘ㅏ’와 ‘ㅑ’의 차이는 여전히 남는 문제이다. 심사위원 한 분은 구역인왕경(15:09)의 ‘ㄷㅑㅑㅑ’의 예로 볼 때 “ㅑㅑ”이 고형이고 ‘뿡’은 추후에 나타난 형태라는 점을 시사하였다. 석독구결의 ‘ㄷㅑㅑ’이 유일레이고 ‘ㅑ’와 ‘ㅑ’가 다른 구결자라는 점에서 본 논의에서는 ‘ㅑ’자의 2가지 독법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 이 문헌에 현토된 음독구결은 최소 2회 이상의 수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종이를 붙여 수정한 예, 백묵으로 지우고 수정한 예, 글자 위에 글씨를 덧써 수정한 예 등이 이에 해당한다. BnF 『능엄경』은 최종적으로 수정되어 현토된 음독구결을 갖고 있는 셈이다.

21) BnF 『능엄경』 전 10권에 기입된 음독구결에 대한 기초 자료 구축 작업이 (16)~(19)과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는 구축 중인 자료 중에서 제1권과 제2권의 처음과 마지막 구결만을 예로 제시한다.

- (16) 가. 像季已還 道術 既裂 ㄴ ㄴ <BnF楞嚴1:1ㄴ 3행>
 나. 像季已還 道術 既裂 ㄴ ㄴ <가람楞嚴1:1a_1_본>
 다. 像季已還 道術 既裂 ㄴ ㄴ <일사楞嚴1:1a_1_본>
 라. 像季已還에 道術이 既裂 ㄴ ㄴ <언해구결楞嚴1:2b_1>
 마. 像季뒀 오매 道術이 ㄴ ㄴ 마 ㄴ ㄴ <언해楞嚴1:2b_1>
- (17) 가. 眞慈 又 善救 ㄴ ㄴ 縱橫激發 亦至矣 ㄴ ㄴ 幾能即迷處 ㄴ ㄴ 而悟哉 ㄴ ㄴ <BnF楞嚴1:46ㄴ_8행>
 나. 眞慈 又 善救 ㄴ ㄴ 縱橫激發 亦至矣 ㄴ ㄴ 幾能即迷處 ㄴ ㄴ 而悟哉 ㄴ ㄴ <가람楞嚴1:25b_25>
 다. 眞慈 又 善救 ㄴ ㄴ 縱橫激發 亦至矣 ㄴ ㄴ 幾能即迷處 而悟哉 ㄴ ㄴ <일사楞嚴1:25b_25>
 라. 眞慈로 善救 ㄴ ㄴ 縱橫激發이 亦至矣 ㄴ ㄴ 幾能即迷處 ㄴ ㄴ 而悟哉 ㄴ ㄴ <언해구결楞嚴1:113b_3-4>
 마. 眞實 慈로 이대 救 ㄴ ㄴ 縱橫으로 激發 ㄴ ㄴ 미 亦 至極 거시늘 며치 能히 迷惑 ㄴ ㄴ 고대 나사 ㄴ ㄴ ㄴ <언해楞嚴1:113b_3>

(16가나다)와 (17가나다)를 서로 비교해 보면 BnF 『능엄경』에서 음독구결이 생략되거나 다르게 기입된 부분이 명확히 드러난다. 경문 왼쪽에 기입된 석독구결도 기본적으로 이 음독구결을 포함하여 해독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다. 그러므로 이 문헌의 석독이 『능엄경언해』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다. BnF 『능엄경』의 석독구결이 『능엄경언해』를 저본으로 하여 그 해석을 그대로 베껴 기입했을 가능성은 낮아진다. 왜냐하면 (17가)의 ‘善救 ㄴ ㄴ’와 같이 언해구결의 ‘이대 救 ㄴ ㄴ’와 음독구결이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석독구결은 이 음독구결을 포함하여 하나의 구조체로 해석된다. 따라서 석독구결도 음독구결에 따라 어미가 다른 우리말 풀이를 갖게 된다.

BnF 『능엄경』 제2권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가람본 『능엄경』, 일사본 『능엄경』, 『능엄경언해』 한글 구결, 『능엄경언해』 언해를 대조하여 살펴보자.

- (18) 가. 爾時_ㄴ 阿難_ホ 及諸大衆(수정 흔적)_ㄴ 聞佛示誨_ㄴ 旧巴口 身心_ㄴ 泰然(종이 붙여 수정)_ㄴ } <BnF楞嚴2:1ㄱ 4행>²²⁾
- 나. 爾時 } 阿難 及諸大衆 聞佛示誨 白口 身心 泰然 } ; <가람楞嚴2:26a_2_본>
- 다. 爾時阿難 及諸大衆乙又 聞佛示誨 全 身心泰然 全 <일사楞嚴2:26a_2_본>
- 라. 爾時阿難과 及諸大衆이 聞佛示誨 ㅎ 습고 身心이 泰然 ㅎ야 <언해구결楞嚴2:1b_1>
- 마. 그_ㄴ 阿難과 모든 大衆이 부터 び야 마_ㄴ 치샤물 들좁고 몸과 ㅁ 습괘 便安 ㅎ야 <언해楞嚴2:1b_1>

- (19) 가. 遂知根塵處界 法法 無非妙眞如性 入乙去 ㄴ ㄴ 此 第二 及第三卷 } ㄴ 大旨也 ㄴ , <BnF楞嚴2:51ㄴ 8행>
- 나. 遂知根塵處界 法法 無非妙眞如性 ㄴ ㄴ ㄴ 此第二 及第三卷 ㄴ 大旨也 ㄴ , <가람楞嚴2:54a_7_해>
- 다. 遂知根塵處界法法無非妙眞如性 ㄴ ㄴ ㄴ 此第二及第三卷大旨也 ㄴ , <일사楞嚴2:54a_7_해>
- 라. 遂知根塵處界 | 法法이 無非妙眞如性인들케 ㅎ시니 이 第二와 及第三卷 入 大旨也 | 라 <언해구결楞嚴2:123a_8-123b_1>
- 마. 根과 塵과 處와 界와 法法이 妙眞如性이 아니니 ㅁ 습둔 알에 ㅎ시니 이 第二卷과 第三卷 入 大旨라 <언해楞嚴2:123a_8-123b_1>

(18가)와 (19가)는 (18나다)와 (19나다)와 각각 비교해 보면 처격에 기입된 ‘ } ’와 ‘ ㄴ ’를 비롯하여 BnF 『능엄경』의 음독구결이 일사본 『능엄경』 및 가람본 『능엄경』과 다르게 기입되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또한 『능엄경언해』의 한글 구결과도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경문 왼쪽에 기입된 석독구결도 기본적으로 이 음독구결을 포함하여 해독할 수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22) 이 구결에 기입된 좌도를 포함한 정보를 []에 기입하면 ‘爾時_ㄴ 阿難_ホ 及諸大衆_ㄴ 聞佛[ㄴ]示誨[乙]_ㄴ 旧巴口 身[ホ]心[ホ]_ㄴ 泰然[便 } }]’의 형태로 정리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음독구결만 다룬다.

BnF 『능엄경』의 석독구결이 『능엄경언해』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두 권의 예를 종합해 보면 BnF 『능엄경』의 음독구결은 일사본 『능엄경』 보다는 가람본 『능엄경』의 음독구결과 유사한 점이 더 많다. BnF 『능엄경』 전체 10권의 음독구결의 기입 양상을 파악하여 분석하면 여기에 기입된 음독구결과 석독구결의 차이를 밝힐 수 있다. 이를 통해 BnF 『능엄경』 특성을 『능엄경언해』와 비교하여 그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고려 말 조선 초 『능엄경』 자료에 기입된 음독구결 자료를 하나 추가할 수 있게 된다.

4. 기입 한글과 주석

4.1. 기입 한글

BnF 『능엄경』에 기입된 한글은 다양한 목적을 띤다. 첫째 일반적인 기능으로 석독에 쓰인 것이다. 이때 한글은 구결자와 같이 쓰여 경문을 우리말 어순에 따라 풀어 읽을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를 풀어주거나 조사와 어미를 표상한다. 다른 예는 음주를 위한 것과 예외적으로 음독구결에 쓰인 것이다. 또한 변란의 밖에 경문 단어의 풀이나 구문의 주석을 한글로 기입한 예가 있다. 협주와 유사한 이러한 기능의 한글 기입은 『능엄경언해』의 협주와 그 내용은 일치하나 표기 형식에서는 차이가 있다.

BnF 『능엄경』에 기입된 한글을 형태적으로 모음과 자음으로 구분하여 그 표기의 특성을 살펴보고,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부정문에 기입된 한글을 그 기능과 관련하여 살펴보자.

4.1.1. 한글 자음

BnF 『능엄경』에 기입된 한글 자음은 각자병서와 합용병서가 함께 쓰이고

있다. 특히 日계 합용병서에서 차이가 많고 각자병서는 ‘ㅅ’만 나타난다. ‘ㄷ’은 ‘ㅇ’과 그 형태를 구분하기 어려우나 ‘ㄷ’이 ‘ㅅ’으로 나타난 예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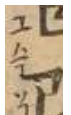



								
1:1	1:5	1:11	1:13	1:15	1:44	1:27	1:1	2:14
ㄱ	ㄱ	ㄱ	ㄴ	ㄱ	ㄱ	ㄱ	ㄱ	ㄱ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2	3	4	5	6	7	8	9	10

그림 2~6은 ‘ㅅ’ 합용병서, ‘ㅅ’ 각자병서, 받침에 쓰인 합용병서, ‘ㅅ’ 합용병서의 예이다. 그림 7은 능엄경언해에 ‘ㄷ’으로 나타나는 곳에 쓰인 ‘ㅅ’이고 그림 8은 ‘ㄷ’과 ‘ㅇ’의 구분이 모호한 예이다. 그림 9와 그림 10은 종성 표기에 ‘ㄷ’이 ‘ㅅ’으로 나타난 예이다.²³⁾

(20) ㅅ장, ㅅ디, ㅅ몹, ㅅ곶, ㅅㄱ ㅅ, ㅅ, ㅅ에, ㅅ디, ㅅ야, ㅅ뎡, ㅅ, ㅅ비, ㅅ, ㅅ르, ㅅ

(21) ㅅ속한, ㅅ시예(ㅅ시예), ㅅ습안(ㅅ습안), ㅅ습ㄴ, ㅅ성귀와(ㅅ성귀와)

(22) ㅅ문닷고, ㅅ, ㅅㄴㄴ, ㅅ, ㅅㄴㄴ, ㅅㄴ,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20), (21), (22)는 그림 2에서 그림 7의 목록을 판독하고 그와 유사한 예의 일부를 더하여 보인 것이다. 약체 구결자가 한글의 음소처럼 쓰이고 있는

23) 심사위원 한 분은 그림 2-10의 예는 이 문헌의 한글 기입 시기가 16세기 이후임을 나타내는 것임을 지적하고, 이 문헌의 음독구결 기입 층위의 다양성과 기입 시기 추정에 정교한 기술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여기에서는 현상에 대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전반적인 경향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논의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입 층위의 다양성과 정교한 기입 시기 추정은 문헌 전체(5권 10책)에 대한 검토를 마친 이후에 진행하고자 한다.

양상이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이 문헌에서 중성 표기의 ‘ㅇ’과 ‘ㅇ’의 구분은 없으며, 한 음절 내에서도 약체 구결자가 음소의 역할을 하는 예가 있다. BnF 『능엄경』의 현토자는 음소와 음운 및 음운 현상에 대한 이해가 있으며, 방언 화자일²⁴⁾ 가능성을 시사한다.

4.1.2. 한글 모음

한글 모음 표기의 특이 형태로 모음 음절의 경우 초성 ‘ㅇ’이 없이 기입된 경우가 나타난다. ‘諸’에 현토된 ‘꺠’와 같이 특정 단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1:32	1:40	1:44	2:41	26ㄱ	2:17	2:12	1:39	1:40	2:51
ㄱ	ㄴ	ㄴ	ㄱ		ㄱ	ㄴ	ㄴ	ㄱ	ㄴ
그림 11	그림 12	그림 13	그림 14	그림 15	그림 16	그림 17	그림 18	그림 19	그림 20

대부분 제1음절에서 초성 ‘ㅇ’이 없는 글자가 나타난다. 그림 19의 ‘꺠 꺠’처럼 제2음절, 그림 15의 ‘구꺠 꺠’처럼 제3음절, 그림 20의 ‘嫌疑ㄴ꺠’처럼 제4음절에 초성이 나타나지 않는 예들도 있다. 당시 현토자는 모음 음절의 음가

24) 구결 기입자의 방언 화자 가능성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이 문헌에 나타난 표기 양상은 16세기 중세국어 현상이거나 개별 화자의 표기 특성일 가능성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다만 (8)에서 다룬 어미 ‘-디위’의 ‘디’에 대한 음독구결 표기에 ‘ㅈ’와 ‘ㅊ’가 함께 나타난다. 이는 방언에서 진행된 ‘ㄷ>ㅈ’ 구개음화 현상의 반영 형태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21)의 ‘프성꺠’는 15세기 ‘프성꺠(1447 석상 11:25ㄴ)’로 나타나다가 16세기 이후 중앙어에서는 ‘ㅅ’이 소실되어 ‘프성꺠(1632 두시-중 13:30ㄴ)’가 되었으나 남부 방언에서는 ‘ㅅ’이 ‘ㅅ’으로 변하여 ‘프성꺠’가 되어 이 형태가 현대국어의 ‘푸성꺠’로 이어진다. 이러한 예는 이 문헌의 구결 기입자가 방언 화자일 가능성을 높여 준다.

에 대한 인식과 초성 ‘ㅇ’의 음가가 없었음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이 자료의 음독구결 기입자는 언어학적, 문자학적 지식을 상당히 갖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23) ㄱ, ㄱ름, ㄱㅁ, ㄱ꺠, ㄱ퇴여, ㄱ는, ㄱ되, ㄱ, ㄱ외, ㄱ닌, ㄱㅈ, ㄱ시, ㄱ쇼, ㄱ니, ㄱ니ㄴ히, 어드, ㄱ, ㅅㅅㅅ, ㄱ수물, ㄱ순, ㄱ즐, ㄱㅁㅁ, ㄱ료물

(23)은 그림 11에서 그림 20까지를 판독하고 그와 유사한 예를 보인 것이다. 여기에서도 구결자는 한글의 음절이나 음소처럼 쓰이는 양상이 나타난다.

4.1.3. 부정문

BnF 『능엄경』에서 부정 표현을 나타내는 경문 ‘不’, ‘非’, ‘末’, ‘無’, ‘莫’에 는 대체적으로 한글이나 구결자로 우리말로 풀이되는 부정 표현이 기입되어 있다. 이 문헌의 부정문은 동일한 몇 개의 유형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부정을 나타내는 동일한 한자에 대한 변이 형태가 잘 드러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한글과 구결의 결합형이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를 보여 주고 있어 구결 기입자의 음절 인식 및 음소 인식의 한 단면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1:38ㄱ 그림 21	1:40ㄱ 그림 22	1:49ㄴ 그림 23	1:44ㄴ 그림 24	2:42ㄱ 그림 25	2:35ㄱ 그림 26	1:38ㄴ 그림 27	2:11ㄱ 그림 28	2:20ㄱ 그림 29	2:30ㄱ 그림 30

- (24) 가. 不勿乙, 不勿乙, ㄱ니, ㄱ니ㄴ히, 不ㄴ히, ㅁ노, 不ㄴ히, 不ㄴ, 不ㄴ히
 乙乙, ㄴ口, ㅁㄴ乙ㅁ, 不ㄴㅁ
 나. 不 듣줍던(월석 12:4), 도티 不흔(석상 13:56), ㄱ니 뭉시니 (월천

25b), 아니흔 警戒률(석상 9:6a), 업슨 사르미오(석상6:13a)

(24가)는 그림 21에서 그림 30까지를 판독하고 그와 같은 예를 일부 더하여 보인 것이다. (24나)는 해당 부정 표현 유형에 대응하는 15세기 어형이다. 부정 표현에 기입된 석독 표기에 능력 부정은 ‘못’, ‘못-’ 또는 ‘못’, ‘못-’ 등으로, 의지 부정은 ‘아니’, ‘나니’, ‘니’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無’는 어간 ‘스’이 연결된 두 번째 음절인 ‘스’, ‘스’ 등으로 쓰인다. 부정 표현에서 앞쪽은 한글이 쓰이고 2음절 이하에서 약체 구결자가 쓰인 예가 많다.

4.2. 주석

이 문헌에는 난외뿐만 아니라 경문의 좌우에 다양한 주석이 쓰여 있다. 이들 주석은 경전 내용에 대한 해석에 관련된 것, 구문에 대한 여러 주석가의 견해, 한자음에 대한 주석, 글자 교정 등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주와 석독과 관련이 있는 의미주 및 석독 순서를 나타내는 후독자(後讀字)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4.2.1. 음주(音注)


BnF 『능엄경』은 경전 원문 글자의 음주가 나타난다. 음주는 벽자(僻字)나 난자(難字) 또는 음이 잘 알려지지 않은 글자에 기입된다.

(25) 가. 剝 박(2: 20ㄴ 6행)

나. 藪 ⇨ 才外切小兒(2:9ㄱ 난외)

(25가)는 경전 원문 글자의 음주이다. 벽자(僻字)는 아니지만 다른 글자로 혼동하기 쉬운 글자인 경우에도 음주가 기입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5나)는 난외에 기입된 글자 ‘藪’에 대한 음주이다. 반절 표기 ‘才外’는 당운

(唐韻)과 같은 의미 설명 ‘小兒’는 ‘작은 모양’으로 풀이할 수 있다.²⁵⁾ 이 글자에 대한 음주는 제2권의 끝이나 제10권의 끝의 음주 추가 부분에 없었다.

		
爲(2:27ㄱ 1행)	爲(2:27ㄴ 8행)	爲(2:27ㄴ 7행)
그림 31	그림 32	그림 33

- (26) 가. 大慧菩薩 爲^ㄴ하샤 因緣義를 니르샤<楞嚴2:64a_4>
 나. 阿難아 하다가 불고미 제 드외울딘덴<楞嚴2:66a_6>
 다. 만약 밝음으로 스스로를 삼으면<楞嚴2:66a_7>

그림 31의 爲(2:27ㄱ 1행)에는 (26가)의 ‘爲^ㄴ’ 의미를 가지는 경우로 오른쪽 위에 거성점인 권점이 표시되어 있다. 그림 32의 ‘爲(2:27ㄴ 8행)에는 ‘化(될 화)’의 오른쪽 부분 ‘匕’자가 작게 기입되어 (26나)의 ‘드외-’ 즉 ‘되다’의 중세국어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3은 ‘爲(2:27ㄴ 7행)에 ‘三’이 글자 오른쪽에 작게 기입된 것이다. 이는 (26다)의 ‘삼-’에 해당하는 뜻을 ‘爲’자에 표시한 예이다. 이 문헌에서 ‘爲’자가 ‘되다’나 ‘삼다’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해당 표기인 작은 글씨의 ‘匕’와 ‘三’이 ‘爲’자에 기입되어 있다.

4.2.2. 내용주

BnF 『능엄경』에서 협주에 해당하는 주석은 난외에 따로 기입되거나 글자

25) 강희자전(康熙字典)의 ‘叢’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唐韻】才外切【集韻】徂外切, 音。【說文】小貌。【左傳·昭七年】蕞爾國。【左思·魏都賦】宵歌蕞陋。又【潘岳·西征賦】蕞芮于城隅者, 百不處一。【註】聚貌。又【集韻】祖外切, 音最。地名, 在新豐。又通蕞。詳蕞字。(https://www.zdic.net/hans/叢)

옆에 내용주 형식으로 기입된다. 내용주 중 언해와 그 표기 형식이 다른 예를 살펴보자.

(27) 가. 鹵莽 사오나온 흘기오 기술시라(BnF楞嚴2:9L 난상)

나. 鹵는 사오나온 흘기오 莽는 기술씨라(능엄경 언해 2:22ㄱ 4행)

(27가)는 난상에 기입된 경전 원문에 어려운 글자의 의미를 밝혀 주는 주석이다. (27나)는 『능엄경언해』에서 이에 해당하는 협주 부분이다. (27가)나 가 기술되는 형식은 글자에 붙는 조사 ‘는’의 유무와 협주에서 용언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에 각자병서 ‘ㅁ’이 쓰이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2.3. 특이 주석

이 문헌에 기입된 주석 중 한자의 사이와 왼쪽 혹은 오른쪽 아래에 구결자 ‘ㄱ’와 유사한 모양의 한자 ‘下’가 작은 글씨로 기입되어 있다. 이 글자는 존칭의 호격 조사 ‘하’를 나타내는 구결자 ‘ㄱ’와 관련성이 없다. 장경준(2019)에서는 『법화경』에 기입된 부독자(不讀字) 표시에 대해 살펴보고 그 기입 양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문헌의 기입된 이 표기도 이러한 부독자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이 부호가 기입된 구절을 살펴보면 해당 글자를 이 구절의 마지막에 읽으라는 표시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호를 나중에 읽는 글자 표시 즉 후독자(後讀字)라고 할 수 있다.²⁶⁾

26) 원문을 풀이할 때 끝에 읽는다는 것을 표시하는 기호이므로 ‘末’자를 써서 말독자(末讀字)라고 할 수 있으나 나중에 읽는다는 의미가 광범위하므로 용어를 후독자(後讀字)로 사용하였다. ‘후독자’와 관련한 용어와 논의는 과문하여 아직까지 찾지 못하였다. 일본 한문 독법의 가에리텐[返り点]의 ‘一二三点, 上中下点, 甲乙丙点, 天地人点’에서 ‘上中下点’의 ‘下’와 이 부호의 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이 문헌에서는 ‘下’가 단독으로 쓰이고 있고, 해독 시 맨 마지막에 읽는 것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두 부호는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BnF 1:10 ㄱ 4행	BnF 2:2 ㄱ 1행	BnF 2:6 ㄴ 1행	BnF 2:9 ㄴ 2행	BnF 2:14 ㄴ 3행	BnF 2:35 ㄱ 8행	BnF 2:41 ㄱ 5행	BnF 2:51 ㄱ 1행
언해 1:25 ㄴ 3행	언해 2:3b 2-5	언해 2:14 ㄱ 2행	언해 2:21 ㄴ 6행	언해 2:34 ㄱ 4행	언해 2:83 ㄴ 2행	언해 2:98 a_3	언해 2:
그림 34	그림 35	그림 36	그림 37	그림 38	그림 39	그림 40	그림 41

그림 34에서 그림41까지는 이 문헌의 제1권과 제2권에 기입된 글자의 예를 순서대로 보인 것이다. 그림 34의 ‘顯’은 경문의 왼쪽에, 그림 35의 ‘明’, 그림 36의 ‘知’, 그림 37의 ‘悟’, 그림 39의 ‘不’, 그림 41의 ‘喻’는 경문의 아래쪽 왼쪽이나 중간에 이 부호가 기입된 예이다. 그림 40의 ‘明’과 그림 39의 ‘執’에는 경문의 오른쪽 아래에 이 부호가 기입되어 있다. 기입 위치에 제약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호가 기입된 구문의 우리말 풀이를 『능엄경언해』의 언해 부분과 비교하여 살펴보자.

- (28) 가. 以顯阿難 示迹、實無虧汚、意在拔濟也 <BnF楞嚴 1:10 ㄱ 4행>
나. 以顯阿難示迹이 實無虧汚호야 意在拔濟也 ㄱ ㄴ ㄹ 호니라 <언해구결 1:25 ㄴ:3-4>
다. 阿難이 자취 비요미 實로 허리며 더러유미 업서 쁘디 싸허며 濟度 호매 잇는 ㄱ 나토니라 <언해楞嚴1:27a>
- (29) 가. 明不生滅性이 在纏、皆具去기 ㄱ ㄱ 而世俗、但隨物化호 乙 ㅈ、雖

(35) 가. 喻性無生滅ソク 無捨受トク 以依幻妄身ソコニ 故逃形於此ソコ
 托生於彼ソコニ <BnF楞嚴2:51 1-2행>

나. 喻性이 無生滅하며 無捨受키를 以依幻妄身홀시 故로 逃形於此호야
 托生於彼호시니 <楞嚴2:121a_7-8>

다. 性이 生과 滅에 업스며 버리며 바도미 업거늘 幻妄호든 모물 브틀씩
 이런드로 이에 얼구를 逃妄호야 더에 생을 브투물 가줄비시니 <楞
 嚴2:121a_7-8>

후독자 부호가 ‘顯’자에 있는 (28)의 구문을 살펴보면 이 ‘顯’은 구절의 가장 마지막 ‘나토니라’로 읽히게 된다. ‘明’에 후독자 부호가 있는 (29)의 구문은 3줄 가량의 긴 구절의 마지막에서 ‘불기시니’로 풀이가 된다. 이 부호가 없다면 ‘明’을 어디쯤에서 읽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후독자 부호가 ‘知’에 있는 (30)의 구문을 살펴보면 이 ‘知’를 구절의 가장 마지막 ‘아롭디니라’로 풀어 읽게 된다. 후독자 부호가 ‘悟’에 있는 (31)의 구문에서는 이 ‘悟’를 구절의 가장 마지막 ‘아니’로 풀어 읽게 된다. (32)의 구문은 양상이 조금 다르다. 후독자 부호가 ‘至’에 있어 후독 부호를 적용하여 풀이하면 가장 마지막에 ‘니르라’로 읽게 된다. 그러나 『능엄경언해』의 언해는 ‘七金山에 니르리’로 나타난다. 이 문헌에서 『능엄경언해』와 우리말 풀이가 다른 계열의 석독을 나타냈을 가능성이 있다. (33)은 한 구문에 이 부호가 2회 나타나는 특이한 예이다. 앞의 후독자 부호가 있는 ‘不’은 ‘不應’이 같이 묶여 구문의 가장 마지막 ‘몰호리니’로 능력 부정을 나타낸다. 일반적인 후독 부호와 그 기능이 같다. ‘執’자에 기입된 후독자는 ‘자보미’로 풀이하여 구문의 끝 구절 ‘자보미 몰호리니’로 ‘몰호리니’의 바로 앞에서 풀이된다. 이 또한 앞의 ‘不’보다 앞서기는 하지만 그 전까지는 마지막에 풀이되는 글자임을 나타낸 것이다. ‘明’에 후독자 부호가 있는 (34)는 (29)와 같은 구조로 구절의 마지막에 ‘발기시니라’로 풀어 읽으라는 표시이다. (35)는 ‘喻’에 후독자 부호가 있어 구절의 마지막 ‘가줄비시니’로 풀어 읽는다.

BnF 『능엄경』에 있는 후독자 부호는 경문을 우리말 순서로 읽을 때 목점

만으로는 나타내기 어려운 어순을 가져 읽기 어려운 구문을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도록 한 장치로 판단된다.²⁷⁾

이 외에도 BnF 『능엄경』에는 2자, 3자, 4자 합부선 등의 부호와 빠진 글자를 채워 넣으라는 교정 부호 등 다양한 정보를 담은 부호와 주석이 기입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구결 표기와 석독에 쓰인 한글 표기에 한정하여 그 표기 양상을 살펴보았다.

5. 결론

본 연구는 프랑스로부터 소장 10권 5책의 대자본 『능엄경』 판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문헌은 학조(學祖)의 발문을 통해 세조 2년(1456)에 후에 소혜황후(昭惠王后) 즉 이후에 인수대비(仁粹大妃)가 되는 동궁빈(東宮嬪) 한씨(韓氏)가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새로 25부를 인출한 자료이다. 경문 좌우와 난외에 목서로 구결과 한자 등이 기입되어 있어 당시의 언어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 국어사적으로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2장에서는 문헌의 장서인과 책의 판본 외의 기록 등을 살펴 이 문헌의 기본적 서지사항과 특성을 이 문헌의 가치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3장은 이 문헌에 기입된 구결자를 구결자 자체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구결 구문은 『능엄경언해』 목판본의 한글 표기와 비교하였다. 4장은 주로 경문의 우측에 기입되어 있는 한글 표기와 난상 등에 기입된 주석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글자에 기입된 후독자(後讀字) 부호가 나중에 읽는 글자를 표시하는 부호임을 실제 예문을 통하여 밝혔다.

본 연구는 BnF 『능엄경』의 음독구결에 쓰인 표기와 석독에 쓰인 한글 표기와 일부 주석에 한정하여 그 기입 양상과 기능을 살펴본 것이다. 연구 결

27) 이 후독자에 대한 논의는 10권 전체에 나타나는 모든 예를 목록화하여 그 양상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후고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과물은 간접적으로 국어사의 시대 구분에 관한 연구에 관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는 능엄경과 관련한 고려 말 조선 초기 불경에 대한 이해 정도를 알려 주는 자료가 된다.

본 연구는 Bnf 『능엄경』에 기입된 구결자와 한글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현상에 대한 정밀한 기술을 목적으로 하여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본질적인 이유에 대한 설명적 논의가 부족한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의 목적이 능엄경과 관련한 조선 초기의 불경 언해에 대한 1차 자료를 연구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앞으로 연구가 축적되어 고도화된 자료로 구축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1. 자료

- 김영배(1996), 역주 능엄경언해 제1.2, 세종대왕기념사업사업회.
-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2006), 大佛頂首楞嚴經(소장유물자료집 IV).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5), 口訣資料集一 高麗時代 楞嚴經.
_____ (1996), 口訣資料集二 朝鮮初期 楞嚴經.
_____ (1996), 口訣資料集三 朝鮮初期 楞嚴經.
- 황선엽 · 이진경 · 하귀녀 외(2009), 석독구결사전, 박문사.
_____ (2009), 음독구결사전(석독구결사전 부록 시디롬),
박문사.
- 전당시 데이터베이스. <<http://cls.hs.yzu.edu.tw/tang/Database/index.html>>.
- 프랑스국립도서관 이미지 검색. <<http://gallica.bnf.fr/ark:/12148/btv1b105093974/f1.image.r=%E6%A5%9E%E5%9A%B4%E7%B6%93>>.
- 한자 검색 사이트(漢典). <<https://www.zdic.net/hans>>.

2. 논저

- 곽동화 · 강순애(2018), 「조선 전기 왕실 발원 불교전적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74집, 한국서지학회, 207-237면.
- 남경란(1997), 「고려본 『능엄경』 입결과 ‘i’형 종결법 연구: ‘남권희(가)본’을 대상으로」, 대구효성가톨릭대 석사학위논문.
_____ (2000), 「『楞嚴經(능엄경)』의 새 자료에 대하여: ‘남권희(다)본’과 ‘과전(坡田)본」, 『어문학』 71집, 한국어문학회, 31-68면.
_____ (2005), 『麗末鮮初 音讀 입결(口訣)의 綜合的 考察』, 景仁文化社.
- 南豊鉉(1990), 「高麗末 鮮鮮初期의 口訣 研究-楞嚴經 記入吐와 表記法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69집, 진단학회.
_____ (1995), 「朴東變本 楞嚴經의 解題」, 『口訣資料集一 高麗時代 楞嚴經』, 정신문화연구원.

- _____ (1999), 『國語史를 위한 口訣研究』, 太學社.
- 朴鎭浩(2008), 「구결 자료 해독의 방법과 실제」, 『한국문화』 44집,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339-348면.
- 安秉禧(1976), 「口訣과 漢文訓讀에 대하여」, 『진단학보』 41집, 진단학회, 143-162면.
- _____ (1977), 『中世國語口訣의 研究』, 一志社.
- _____ (1997), 「활자본 능엄경언해 해제: 권1.10을 중심으로」, 영인본 『능엄경언해』 별책, 문화재관리국.
- 장경준(2019), 「범응스님 소장 『법화경』 구결에 표시된 부독자(不讀字)」, 『한국어학』 84집, 한국어학회, 91-134면.
- 鄭在永(1996), 「衹林社 楞嚴經의 解題」, 『口訣資料集二(朝鮮初期 楞嚴經)』,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鄭在永(2006), 「韓國의 口訣」, 『口訣研究』 17집, 口訣學會, 125-181면.
- _____ (2014), 「口訣의 종류와 각 시대별 특징」, 『大學院研究論集』 7집, 중앙승가대 대학원, 99-142면.
- 千惠鳳(2006), 「成達生書 『大佛頂首楞嚴經』初刊本」,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2006) 論考, 169-197면.
- 하정수(2017), 「프랑스국립도서관 所藏 『楞嚴經』 소개」, 국어사학회 월례 강독회 발표문, 국어사학회, 1-13면.
- _____ (2019),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보물 제1603호 “능엄경(楞嚴經)” 구결(口訣) 연구」, 『우리말연구』 58집, 우리말학회, 41-73면.
- 한지희 · 김효경 · 이혜은(2017), 「프랑스국립도서관 필사본장서부에 소장된 한국 고문헌 연구」, 『書誌學研究』 69輯, 한국서지학회, 307-325면.

【Abstract】

A study on Written Kugyol(口訣) and Hangeul(한글) of the Materials of *Neungeomgyeong*(楞嚴經) volume 1, 2 kept in Bibliotheque Nationale de France(BnF)

Ha, Jeongsoo

This paper aims to explain the kugyol(口訣) and Hangeul(한글) of “the Materials of *Neungeomgyeong*(楞嚴經, Surangama-sutra) vol 1, 2 kept in Bibliotheque Nationale de France”(from now on we called this by BnF *Neungeomgyeong*(楞嚴經)). It has many informations about Korean linguistic history. Translation of *Neungeomgyeong*(楞嚴經, Surangama-sutra) was the first work and important work of king Sejo(世祖). It was his the Korean own language and character(한글) translation. The ten volumes of the text were originally published in 1461 in a movable-type edition. Then one year after in a woodblock printing were published in 1462. King Sejo(世祖) and prominent scholars and monks of the time examined various books such as *Neungeomgyeong*(楞嚴經) documents. And they reflected the results of studies and debates in the translation. Therefore, this book shows various perspectives on these translations after this work. Some Materials of *Neungeomgyeong*(楞嚴經) is written by character borrow system(借字表記法) of Koryeo dynasty. This BnF *Neungeomgyeong*(楞嚴經) documents enables understanding of that work compared *Neungeomgyeongeonhae*(楞嚴經諺解).

In chapter 2, We focused on the basic bibliography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this documents, and focused on the queen(韓氏) and the monk Hakjo(學祖) who wrote the remarks(跋文). In chapter 3, The Eumdok-kugyol(音讀口訣) characters written in this document were categorized based on their form. And

we describe the basic work for contrasting this documents with other *Neungeomgyeong*(楞嚴經) documents of the early Joseon Dynasty. In chapter 4, For the Hangeul written in Seokdok-kugyol(釋讀口訣) in this document, the morphological and grammatical characteristics of the Hangeul were examined, and other annotations were discussed.

BnF *Neungeomgyeong*(楞嚴經, Surangama-sutra) documents has a great significance in showing the relation of the Joseon Dynasty era eonhae(諺解) as a result of the Koryo Dynasty era Seokdok-kugyol(釋讀口訣) in the continuity of Korean linguistic history. It shows the process of accepting the early translations of Korean by Hangeul(한글), and shows the tradition of the Goryeo Era translation of Buddhist Studies in the Royal Family and its traditions.

keyword : kugyol(口訣),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BnF), *Neungeomgyeong* (楞嚴經 Surangama-sutra), eumdok-kugyol(音讀口訣), seokdok-kugyol(釋讀口訣), last read letter(後讀字), characters that written in(記入墨書), Hangeul annotations that written in ink

이 논문은 2020년 06월 23일에 투고되었으며, 2020년 07월 16일에 심사 완료되어 2020년 07월 1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